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만 성신부전으로 20년 동안 투석을 해왔습니다.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오래 기다렸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몇 달 전 전립선암을 진단 받고 일을 그만두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막상 바라던 이식이 결정되었을 때도 병원비가 먼저 걱정됐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님이 오셔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을 때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산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게도 지원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아산재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치료 받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희 드림


아산재단은 'SOS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집을 희망으로 채워주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가정형편으로 새 동네에 이사한 후 적응이 어려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새로 사귄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는 시골집 같이라며 '난 이런 집에서는 못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이 너무 부끄럽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사 간다고 해주셨을 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이 행복했어요. 이사하고 집을 둘러보는데 너무 행복해서 살짝 눈물이 났습니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제 방을 예쁘게 꾸미고 싶었지만 엄마는 집을 구하느라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어떡하나'라며 엄마의 걱정이 컸는데 얼마 후 조금씩 가구와 가전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산재단에서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세상에는 우리 집을 이상하다고 한 친구도 있지만 아산재단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새 집에 온 뒤로 마음이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아요. 글을 잘 쓰지 못하지만 제 진심이 아산재단에 잘 전해졌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현민 드림

